

한미 FTA 오늘 상정...국회 전운 고조

곳곳 몸싸움...상임위 모두 파행

민주, 문방위 등 '실력 저지' 물리적 충돌 빚어져

한 '질서 유지권' 발동...연내 처리 가속도

민주 "모든 수단 동원 상정 막아 내겠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의 '18일 상임위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실력 대결 준비에 나서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17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이에 민주당은 의통위에 정세균, 신낙균 의원 대신 김우남, 김영록 의원을 보임시키는 등 '육단 저지'도 불사할 태세를 갖췄다.

의통위 관계자는 이날 "박 위원장이 오늘 오전 직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며 "한미FTA 비준안 상정에 대해 민주당이 실력저지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의통위 전체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의통위원들을 제외한 인사들에 대한 회의장 출입이 통제된다"며 "회의 도중의 사진촬영을 방해할 경우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동원해 퇴장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 들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날 외교통상위 회의장 주변

에 국회 경위들이 전격 배치된 한편, 의통위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앞서 의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상임위에 상정해 토의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몸으로 막겠다는 게 민주 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나"며 "민주당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 천천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재협상을 거론하지도 않는데 왜 벌써 격정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문학진 의원은 "필요하면 다른 당과 공조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과 보폭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일(18일) 상정을 막아 내겠다"고 일선 불사의 자세를 견지했다.

민주당은 특히 해외 출장 중인 신낙균 의원과 물리적 충돌에 직접 나서기 곤란한 정세균 대표 대신 김우남, 김영록 의원을 의통위에 사보임(사인과 보임의 준말로 국회 상임위 위원을 교체하는 것)하는 등 18일 벌어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18일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 대표단 모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법시위실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선진당 김낙성,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유선호·김영록 의원. /연합뉴스

질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자유선진당은 주중 비준안 상정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실력저지를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의통위 간사인 박선영 의원은 "18일 일방 상정에는 반대하지만 몸으로 막지는 않고 전체회의에서 정당하게 반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이낙연 농식품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미FTA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기초조사가 미흡하고 최

소한 농수축산 단체의 동이나 신뢰를 받는 보완대책도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 비준해선 안 된다"며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교섭단체 간사인 한나라당 이계진, 민주당 최규성,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런 의견을 비준동의안을 다루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강행 하겠다고 밝히고 민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후 처음으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국회는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국토해양위, 보건복지가족위, 교육과학기술위, 행정안전위 등 5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계류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충돌로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에 계속 불참했으나 전날까지는 한나라당이 회의를 강행하지 않아 양측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방위는 오전 10시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 1시간 30분만에 산회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민주당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상임위가 법안 심의를 안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상임위를 소집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안 갈 수 없다"고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 위원장의 회의

장 입장을 막은 데 이어 전체 회의장의 위원장석까지 점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왜 막느냐"며 맞서 양측간 고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행안위는 한나라당 소속인 권경석 소위원장이 오후 법안소위 개회를 선포하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컵이 깨지고 여야 의원간 막말이 오가는 등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입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복지위도 오전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단독 심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점거, 정회가 선포됐다.

교과위 법안소위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으로 회의를 시작했으나 선진과 창조정의 모임 간사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항의함에 따라 산회했고, 회의 입장을 다시 잡기로 했다.

국토위 역시 민주당이 회의 개최를 반대함에 따라 다음 주 여야 간사간 협의 후 다시 입장을 다시 잡기로 하고 개회 직후 산회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에 계속 불참했으나 전날까지는 한나라당이 회의를 강행하지 않아 양측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방위는 오전 10시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 1시간 30분만에 산회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민주당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상임위가 법안 심의를 안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상임위를 소집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안 갈 수 없다"고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 위원장의 회의

장 입장을 막은 데 이어 전체 회의장의 위원장석까지 점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왜 막느냐"며 맞서 양측간 고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행안위는 한나라당 소속인 권경석 소위원장이 오후 법안소위 개회를 선포하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컵이 깨지고 여야 의원간 막말이 오가는 등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입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복지위도 오전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단독 심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점거, 정회가 선포됐다.

교과위 법안소위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으로 회의를 시작했으나 선진과 창조정의 모임 간사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항의함에 따라 산회했고, 회의 입장을 다시 잡기로 했다.

국토위 역시 민주당이 회의 개최를 반대함에 따라 다음 주 여야 간사간 협의 후 다시 입장을 다시 잡기로 하고 개회 직후 산회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에 계속 불참했으나 전날까지는 한나라당이 회의를 강행하지 않아 양측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방위는 오전 10시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 1시간 30분만에 산회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민주당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상임위가 법안 심의를 안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상임위를 소집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안 갈 수 없다"고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 위원장의 회의

"소방·경찰공무원 근속승진 대상 확대를"

민주당 이윤석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무소속, 무안·신안)이 17일, 경찰관과 소방관의 근속승진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계급에서 일정 기간 재직할 자에 대해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 경찰관은 경장·경사·경위에서



경감까지로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했다. 두 법안이 시행된다면 소방위와 경위 계급에서 근무 중인

2만8천여명의 소방관·경찰관에게 소방경과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한다면 민생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장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당원들간에 이견이 나타나 자체적으로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지금까지 중앙당 사무부총장 직할체제로 운영돼

한나라 전남도당 직무대행 김기룡씨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17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룡(47) 순천시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을 전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순천 출신인 김 위원장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예비후보 시절 비서실 부실장과 대선후보 특보를 지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지난 9월 도당위원

었다.

김 위원장은 "대의적으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중앙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당내에서는 당원들의 권의 향상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지경기자 dok2000@

한 '쟁점법안 처리' 속도 낸다

홍준표 "경제살리기 법안 등 조속 통과시켜야"

한나라당이 연말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법안 분류 작업 ▲상임위별 쟁점법안 심의·처리 전략 수립 ▲쟁점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비한 명분 쌓기 등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 법안, 세출 부수법안, 사회개혁 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희태 대표는 "국회도 속도전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홍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생고통 해소,

투자활성화 유도, 일자리 창출, 공정·바른 사회질서 확립, 북한인권 개선, 지역 공동발전 법안 등으로 분류한 주요 논의 법안 80여개를 선정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또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전략을 다듬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안의 강행 처리는 결국 향후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도 이를 감안, "어제부터 야당과 접촉을 시작했으며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박희태 대표도 한 라디오에 출연,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듣고 타협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국회 보이콧' 투쟁 고삐

丁 대표, 상임위별 '실력저지조' 구성...금족령도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공처리 방침에 맞서 '국회 보이콧' 투쟁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상임위 불참에 이어 17일에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국토해양위, 보건복지가족위와 교육과학기술위,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행안위 법안소위 등 한나라당 측이 강행 의지를 피력하는 상임위의 경우 실력저지를 시도, 공전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주부터 쟁점법안의 상임위 상정 및 심의를 본격화하기로 함에 따라 상임위별로 '실력저지조'를 짜고 상임위별 원내부대표단을 배치하기로 하는 등 대역 투쟁전술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한미FTA 일방상정을 공언한 18일의 외교통상통일위가 여야간 임시국회 정면격돌의 첫 시험대라고 보고 실력저지에 만전을 기할 태세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투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한 전열정비에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최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임시국회 중 가급적 외유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가야할 경우에는 꼭 신고하고 다녀오라"며 "앞으로 지역구 갈 생각하지 말라"고 "금족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비상연락망 가동시 바로 국회에 모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달라"며 "힘을 다 합쳐도 모자를 관에 빠지면 되겠느냐. 흩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포사모! 광주·전남 발대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새마을사랑광주대회를 사랑해주시는
 71,181명분의 "포사모"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1월 새마을사랑광주대회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1. 새마을사랑광주대회 후원회 구성

광주광역시 새마을사랑광주대회 후원회(회장 김기룡)를 구성하고, 12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정확히) 새마을사랑광주대회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2. 새마을사랑광주대회 후원회 구성

광주광역시 새마을사랑광주대회 후원회(회장 김기룡)를 구성하고, 12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정확히) 새마을사랑광주대회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3. 새마을사랑광주대회 후원회 구성

광주광역시 새마을사랑광주대회 후원회(회장 김기룡)를 구성하고, 12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정확히) 새마을사랑광주대회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새마을사랑광주대회 후원회(회장 김기룡)를 구성하고, 12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정확히) 새마을사랑광주대회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새마을사랑광주대회 후원회(회장 김기룡)를 구성하고, 12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정확히) 새마을사랑광주대회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새마을사랑광주대회 후원회(회장 김기룡)를 구성하고, 12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정확히) 새마을사랑광주대회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전라남도